

I

경영환경

- 2021년 3/4분기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과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대비 성장세가 완만하게 나타남
 - 2021년 3/4분기 세계 무역과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크게 둔화되었고,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음
- 2021년 3/4분기 국내경제는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었으나, 9월 이후 대면 서비스업 중심의 민간소비 확대로 2021년 연간 4.0% 수준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3/4분기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폭이 전기 대비 축소되었고, 수출입 증가율도 2/4분기 큰 폭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3/4분기에 하락세로 전환됨
 - 한국은행과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4.0%, 3.9%로 전망함
- 한국은행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공급 차질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였으나 미국과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재개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0.75%에서 1.25%로 인상함
 - 고용상황 및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고자 함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2.12%, 2.51%로 상승하였으며, 장단기 스프레드는 인플레이션 우려 및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순매도 지속 등의 영향으로 축소됨
- 2021년 3/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채권 거래금액은 증가한 반면, 보험 및 연금과 국내외 주식 거래금액이 전기 대비 감소하였음
 - 2021년 3/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4.5%로 2/4분기 소폭 상승한 이후 다시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 수준에 머물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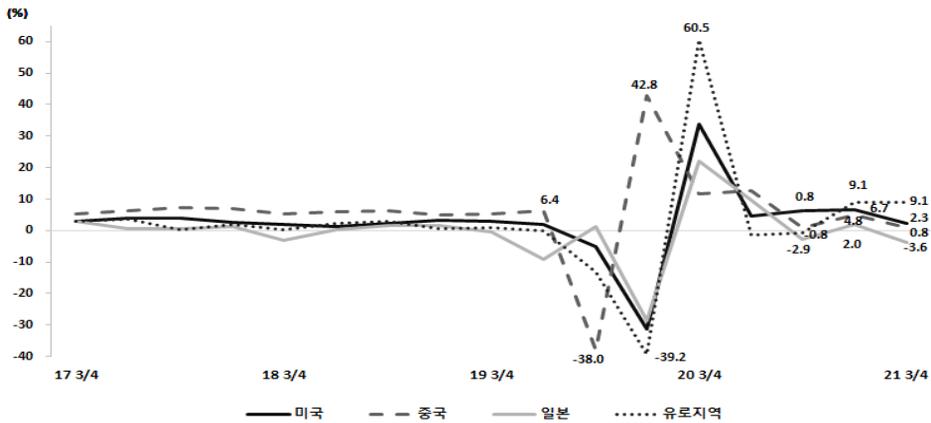
1. 경제

가. 세계경제

○ 2021년 3/4분기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과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대비 성장세가 완만하게 나타남

- 미국 GDP는 민간 소비지출 감소와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출 축소 영향 등이 반영되며 전분기보다 4.4%p 낮은 2.3%를 기록함¹⁾
- 중국 경제는 2021년 3/4분기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감소와恒大그룹 관련 리스크 지속 등으로 전분기 대비 4.0%p 하락한 0.8% 성장에 그침²⁾
-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민간 소비지출이 큰 폭 감소하면서 3/4분기 G7 국가 중 유일하게 역성장(-3.6%)함³⁾
- 유로지역은 2/4분기보다 정부지출과 수출 증가폭은 감소하였으나, 가계 소비지출 규모 증가로⁴⁾ 전분기 수준의 9.1% 성장을 유지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1. 12); 중국 국가통계국(2021. 10); 일본 내각부(2021. 12); Eurostat(2022. 1)

1)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1. 12),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Estimate), Corporate Profits (Revised Estimate), and GDP by Industry, Third Quarter 2021"

2) CNBC(2021. 10), "China GDP disappoints, third-quarter growth slows to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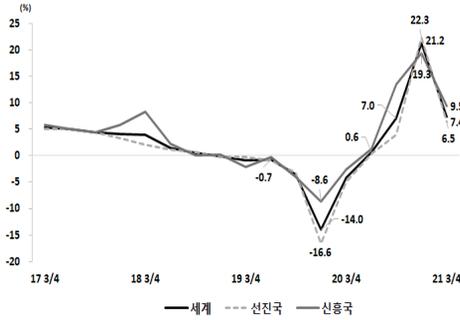
3) Nikkei Asia(2021. 12), "Japan GDP growth in April-June upgraded to annualized 1.9%"; OECD News Release(2012. 11), "OECD GDP slows in third quarter but regains pre-pandemic level"

4) Eurostat(2021. 12),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third quarter of 2021"

○ 2021년 3/4분기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4%, 6.5% 증가하였으나 전 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감소함

-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규모 증가율은 각각 6.5%, 9.5%였으며, 선진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였고, 신흥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8%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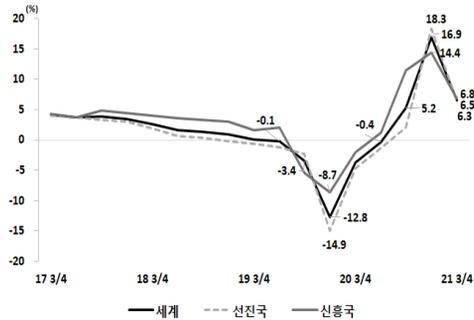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21. 11)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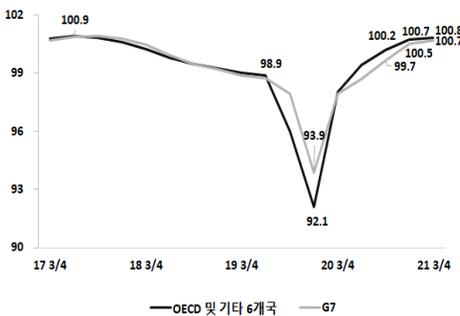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21. 11)

○ 2021년 3/4분기 세계 경기선행지수⁵⁾는 100.8로 5분기 연속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주요국 경기선행지수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임

- G7의 경기선행지수는 100.7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하였고, 미국은 전분기와 동일한 100.3, 중국은 0.4p 하락한 100.8, 일본과 유로지역은 전분기보다 각각 0.1p, 0.5p 상승한 100.9, 101.1을 기록함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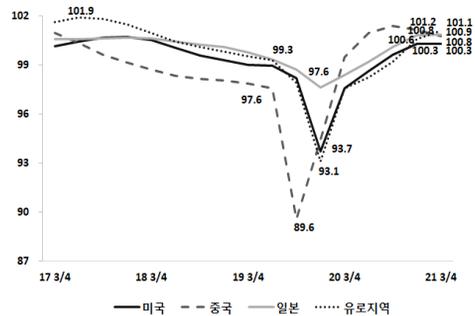


주: 1)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2) 기타 6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자료: OECD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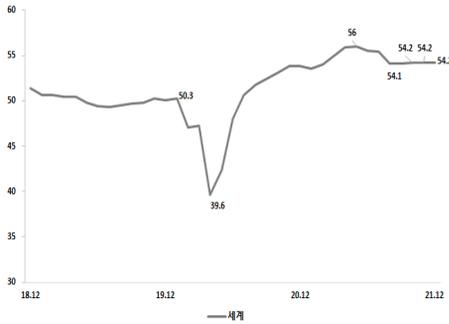
자료: OECD

5)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 하강을 의미함

○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⁶⁾는 2021년 7월 최고치인 56.0에 도달 후 54.1~54.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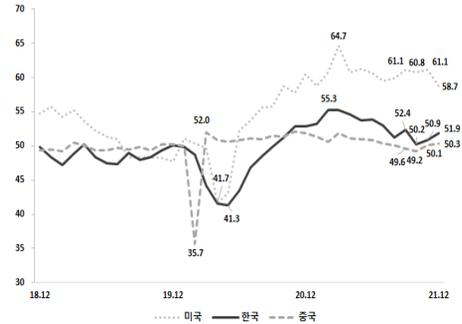
- 2021년 12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8.7로 수개월 지속된 60선 수준을 하회하였고, 한국과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소폭 상승하여 각각 51.9, 50.3을 기록함

〈그림 6〉 세계 제조업 PMI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7〉 주요국 제조업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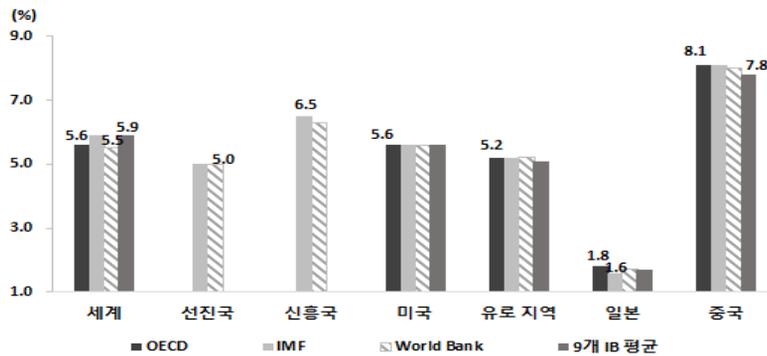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주요 기관들은 코로나19 재확산, 각국 정책지원 축소,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World Bank와 OECD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경제회복 수준 격차로 인해 전체적인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함⁷⁾

〈그림 8〉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주: 9개 IB: Barclays, BoA-ML, Citi, BnP Paribas,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Societe Generale, UBS
 자료: IMF(2022. 1); OECD(2021. 12); World Bank(2022. 1); 9개 IB 평균(2021. 12)

6)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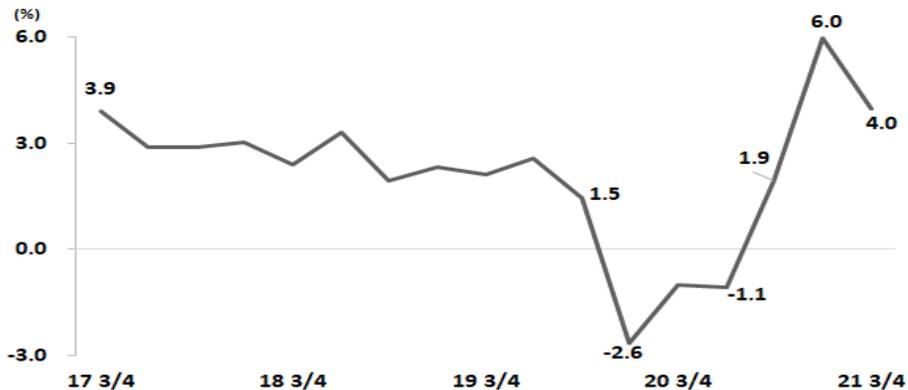
7) OECD(2021. 12),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1 Issue 2*

나. 국내경제

○ 2021년 3/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둔화됨

-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3.2% 확대되었으나, 2/4분기에 비해 증가폭은 감소함
 -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함
 -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 대비 2.7p 하락한 103.2로, 지난 1년간 이어진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됨
-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됨⁸⁾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와 운송장비 투자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났고,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 5분기 연속 감소함
 - 기계수주는 민간과 공공에서 수주가 모두 늘어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율을 보였고, 건설수주는 8월 증가했으나 7월과 9월 모두 줄어 3/4분기 종합 1.1% 증가에 그침
- 수출입 증가율은 2/4분기 큰 폭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 후 3/4분기에 하락하였고, 수출과 수입 각각 7.2%, 6.6%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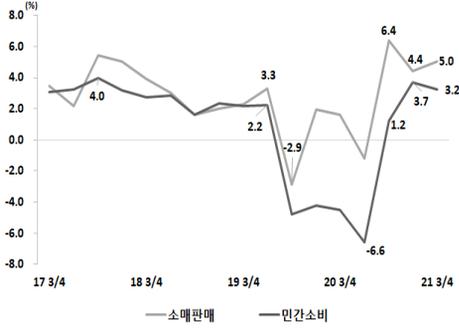
〈그림 9〉 국내 경제성장률



주: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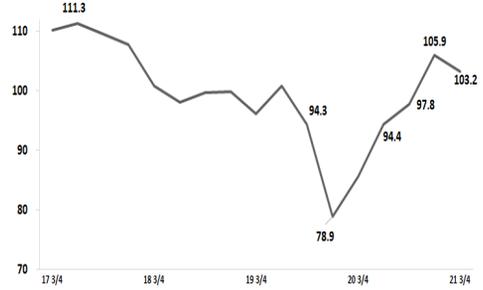
8) 통계청 보도자료(2021. 8), “2021년 7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1. 9),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1. 10), “2021년 9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0〉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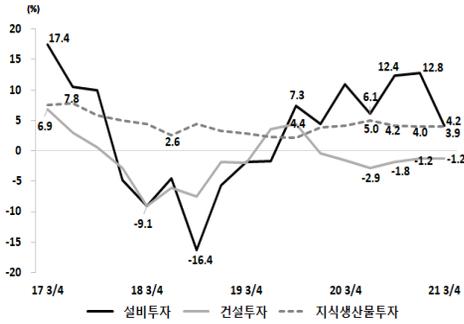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1〉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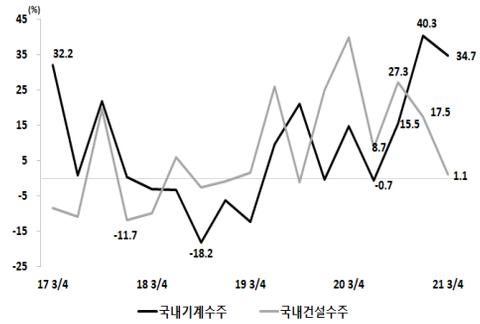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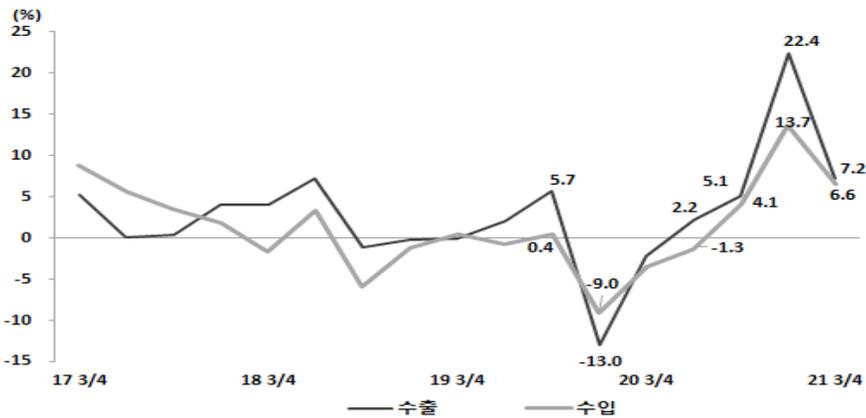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3〉 기계수주, 건설수주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그림 14〉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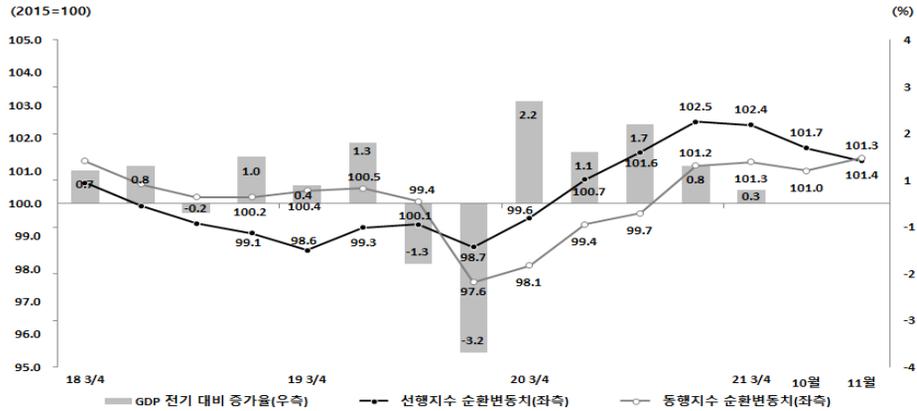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3/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하락한 102.4,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상승한 101.3을 기록함

- 2021년 11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년 2/4분기부터 점차 하락하여 101.3을 기록하였고, 2021년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1.4)는 2018년 3/4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함

〈그림 15〉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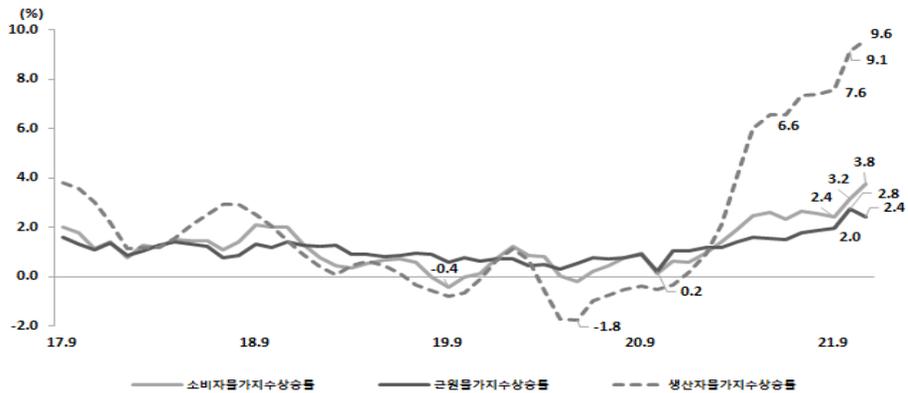


주: 2021년 10월과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21년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8%로 9월 2.4% 대비 크게 높아졌고, 2021년 3/4분기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는 개인서비스와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침⁹⁾

〈그림 16〉 물가상승률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9) 기획재정부(2021. 10; 2021. 11), 「최근경제동향」

○ 국내외 주요 기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방역 방침 전환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 강화를 예상함

- 한국은행과 KDI는 3/4분기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 대면 서비스업 주도의 민간 소비 확대가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 예상하여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함
- 주요 해외투자은행¹⁰⁾은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최저 3.8%(Citi)에서 최고 4.1%(BoA-ML), 평균 3.9%로 전망함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F) ¹⁾		2022(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2.0	-0.9	4.0	4.0	3.0	3.0
민간소비	1.7	-5.0	3.5	3.5	3.6	3.9
설비투자	-7.5	7.1	8.2	9.1	2.4	3.2
건설투자	-2.5	-0.4	-0.7	-0.5	2.6	2.4
지식생산물투자	3.0	4.0	4.1	4.0	3.9	3.3
상품수출	0.5	-0.5	8.5	8.5	2.6	2.6
상품수입	-0.8	-0.1	10.1	10.3	3.1	3.3
실업률	3.8	4.0	3.7	3.7	3.6	3.7
소비자물가	0.4	0.5	2.3	2.3	2.0	1.7
경상수지	600	753	920	912	810	651
상품수지	769	819	765	786	750	6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69	-67	155	126	60	-39

주: 1)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1. 11),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1. 11), 『KDI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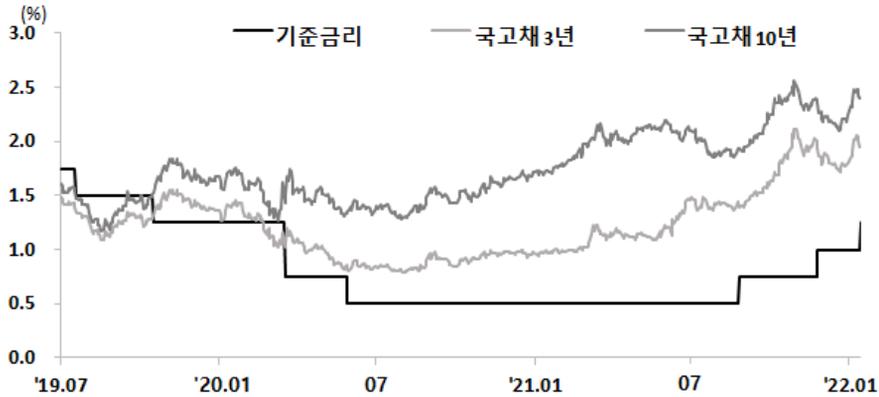
10) 9개 IB(Barclays, BoA-ML, Citi, Goldman Sachs, J.P.Morgan, Nomura, Credit Suisse, HSBC, UBS), 2021년 12월 말 기준임

2. 금융

가. 금리

- 한국은행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공급 차질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였으나 미국과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재개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0.75%에서 1.25%로 상향조정하였고¹¹⁾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임
 -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 및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2021년 11월 25일과 2022년 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p씩 인상함
 -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회복세는 둔화될 수 있으나 자산가격 상승 및 시장의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우려되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하고 금융불균형 위험을 해소하고자 함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 등의 영향으로 3년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¹²⁾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됨
 - 11월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2.12%, 2.51%를 기록함

〈그림 17〉 기준금리, 장단기 국고채 금리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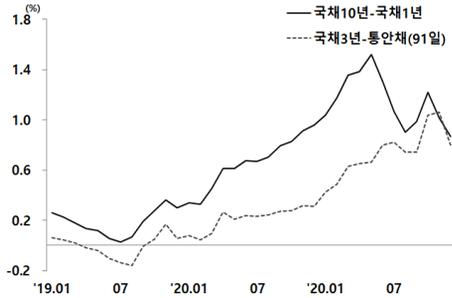
-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됨

11) 한국은행(2021. 11. 25),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12)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중도환매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2조 원 규모의 국고채 긴급 바이백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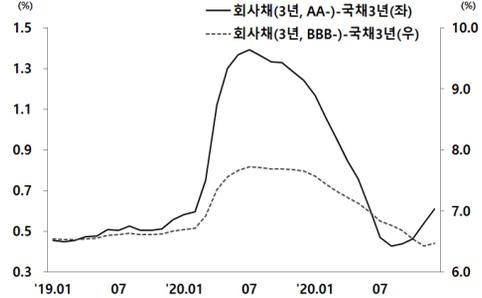
-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 - 3년물)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순매도 지속 등에 따른 단기물 중심의 상승세로 인해 10월 68.1bp에서 12월 33.8bp로 축소됨
- 신용스프레드(회사채AA-, 국고채 3년물)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고채 금리 변동성 확대와 신용채권에 대한 투자심리 축소 등의 영향으로 10월 46.0bp에서 12월 61.0bp로 확대됨

〈그림 18〉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19〉 신용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 미국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의 데이퍼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우호적 수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제한된 상승세를 보임
 - 11월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제한된 상승세를 보이며 1.67%를 기록함
 -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2%로 1990년 12월 이래로 최고치를 경신함
 - 이후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미 국고채에 대한 우호적 수요가 이어지면서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11월 말 1.44%에서 12월 말 1.50%로 상승함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2년 1/4분기 한국의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를 지난 10월 전망치에 비해 상향 조정한 반면,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하향 조정함
 - 2022년 1/4분기 한국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각각 1.94%, 2.44%로 지난 10월 전망치에 비해 0.22%p, 0.31%p 상향 조정하였고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1.71%로 지난 전망치에 비해 0.09%p 하향 조정함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3년) 금리		
'22. 1Q	2Q	3Q	'22. 1Q	2Q	3Q	'22. 1Q	2Q	3Q
1.71	1.85	1.95	2.44	2.48	2.57	1.94	1.90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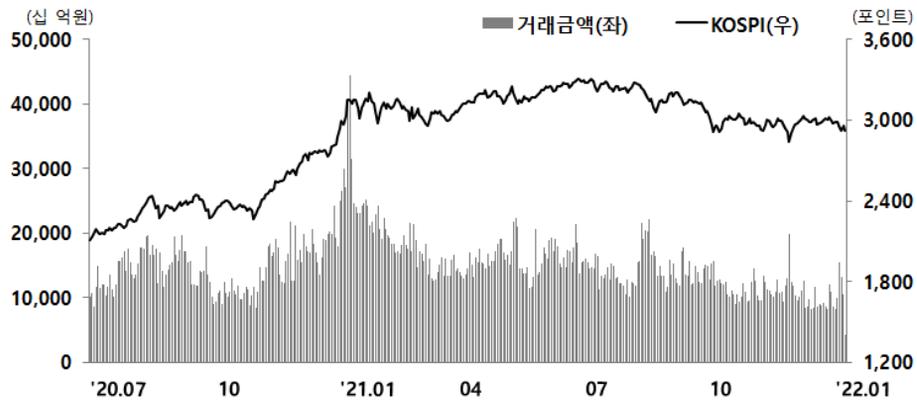
주: 2022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월 중순 기준임

자료: Bloomberg

나. 주가 및 환율

- 코스피(KOSPI) 지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수출 실적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 3,000선에서 박스권을 지속함
 - 11월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월 말에는 연중 최저치(2,839포인트)로 마감함
 - 12월에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수 조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축소, 건조한 수출 실적, 풍부한 시중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¹³⁾ 코스피 지수는 3,020포인트까지 반등함

〈그림 20〉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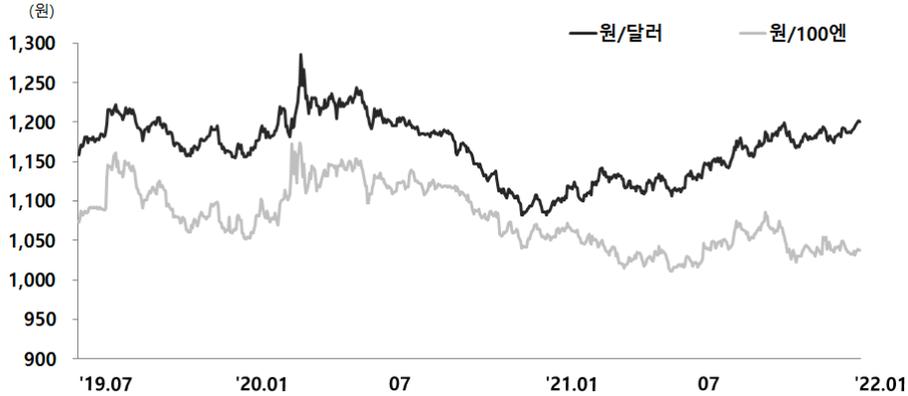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 원/달러 환율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며 달러화 강세를 보였으며, 미 연준의 점진적인 통화긴축 스탠스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함
 - 11월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도세 심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1,190원대로 반등함
 -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 및 자산매입 축소 발표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며, 1월 초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까지 상승함
- 원/엔 환율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본 중앙은행(BOJ)의 차별화된 통화정책, 낮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 11월 원/엔 환율은 오미크론 확산과 주요국의 재봉쇄 조치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세 둔화가 우려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어 100엔당 1,150원대로 소폭 상승함

13)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22. 1. 6), 「한은, 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 『1월 금융시장 브리프』

- 한편, 일본 중앙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¹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무역 적자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엔 환율은 하락세를 나타냄

〈그림 21〉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2년 1/4분기 환율이 전분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차 축소 가능성, 무역수지 적자 반전 등의 영향으로 원화 약세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평균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21. 4Q	'22. 1Q	'21. 4Q	'22. 1Q	'21. 4Q	'22. 1Q
Wells Fargo	1,170	1,200	114	115	1.14	1.11
Mizuho Bank		1,200		116		1.13
PNC Financial		1,200		116		1.12
BNP Paribas		1,195		116		1.13

주: 2022년 1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월 중순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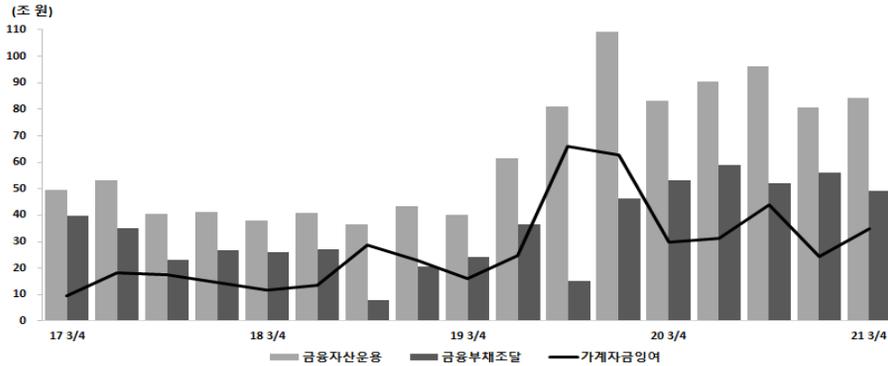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14)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11월 기준 0.6%로 2019년 말 이후 연 1% 아래를 기록하고 있음

3. 자금흐름

- 2021년 3/4분기 가계부문¹⁵⁾의 자금잉여¹⁶⁾는 35.0조 원으로 전기 대비 10.5조 원 증가하였음
 - 2021년 3/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부채조달은 49.2조 원으로 전기 대비 감소하였고, 금융자산 운용은 84.2조 원으로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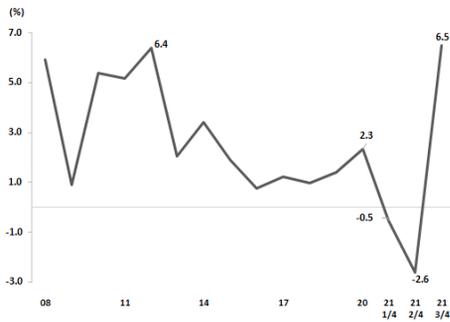
〈그림 22〉 가계자금잉여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3/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6.5% 늘어나며 15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2021년 2/4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12.4%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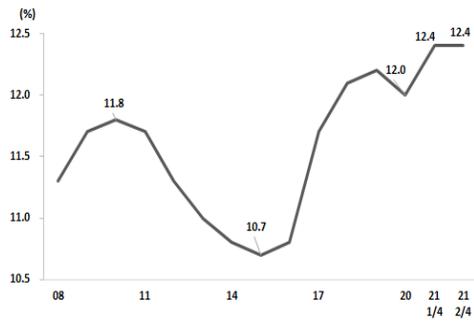
〈그림 23〉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2020년 이후 증가율은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에서 '2인 이상 가구 비농림어가'로 변경, 발표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24〉 DSR



자료: BIS

15)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16)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 2021년 3/4분기 가계부문에서 현금 및 예금, 채권 거래금액은 증가한 반면, 보험 및 연금, 국내외 주식 거래금액은 전기 대비 감소하였음
- 2021년 3/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4.5%로, 2/4분기 소폭 상승 이후 다시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 수준에 머물러 있음

〈표 4〉 가계 금융상품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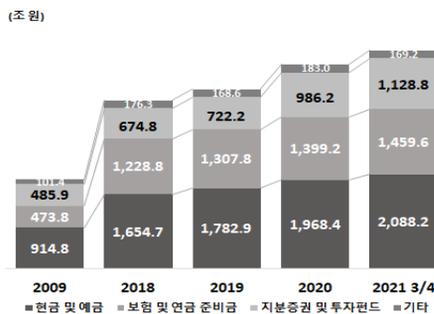
(단위: 조 원, %)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17	105.4	83.3	(46.8)	-11.9	0.0	1.3	-3.6	3.6	178.1
2018	75.3	60.7	(37.8)	0.0	21.8	1.7	0.0	1.2	160.7
2019	130.7	72.0	(39.6)	-17.3	-7.9	2.1	2.0	0.0	181.6
2020	189.9	73.0	(20.1)	10.2	62.2	20.6	-6.6	14.5	363.8
2021 1/4	41.9	13.8	(14.4)	-11.8	36.5	12.5	2.6	0.6	96.1
2021 2/4	36.3	13.0	(16.1)	-5.1	29.2	2.8	1.0	3.3	80.5
2021 3/4	42.1	12.2	(14.5)	0.7	26.1	2.4	-1.4	2.1	84.2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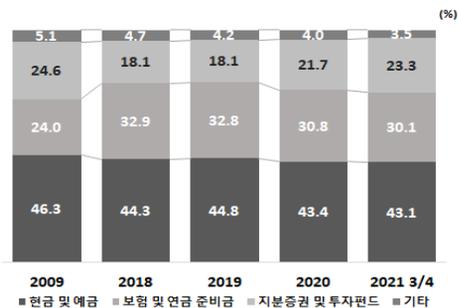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1%로 2020년에 비해 0.7%p 하락함
- 2021년 3/4분기 가계 자산 중 현금 및 예금 비중은 2020년 대비 0.3%p 하락한 43.1%이고,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비중은 전년도보다 1.6%p 증가한 23.3%임

〈그림 25〉 가계금융자산 구성(금액)



자료: 한국은행

〈그림 26〉 가계금융자산 구성(비중)



자료: 한국은행

4. 규제·제도

-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2021. 12. 31 금융위원회)
 -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는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하여(최대 3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2022. 1. 1)(2021. 12. 30 금융감독원)
 - 마약·약물 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최대 1억 5천만 원)을 신설하고,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최대 1천 5백만 원에서 최대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함
 - 군복무(예정)자 사망 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상실수익액 산정 시 할인율(중간이자 공제)을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에서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사망·후유장애 보험금이 증가함
 - 이륜차 사고 시 이륜차 전용의류의 구입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보상기준을 명확화함
- 외화보험 설계·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2021. 12. 22 금융위원회)
 -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이지만, 실제 판매 시 소비자는 '원화'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만기가 긴(30년 이상) 보장성보험(종신, 질병보험)과 저축성보험(연금보험)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외화보험은 설명 불충분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증가, 환율에 따른 위험 부담으로 소비자의 금전손실 발생, 보험회사의 환율변동에 따른 건전성·유동성위험이 내재되어 있음
 - 소비자보호를 위해 외화보험 판매절차를 강화하고, 대표이사 책임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 마련 후 판매하도록 하며, 단계적 소비자보호조치를 도입할 것임
 - 실수요자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임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도입(2021. 12. 9 금융위원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1. 12. 9)함에 따라 퇴직연금(DC·IRP)에서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인 디폴트옵션이 시행될 예정임(2022년 6월 중)

- 이를 통해 퇴직연금이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장기수익률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퇴직연금사업자(보험, 증권, 은행)와 상품제공자(보험, 자산운용사 등)의 상품 개발 노력 등으로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공공데이터, 특수법인까지 개방 확대(2021. 11. 22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9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들이 쉽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OpenAPI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2021년 11월 22일 현재 보험업분야를 포함한 4개 특수법인과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금융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18개 API를 추가 개방하였음
 - 보험업분야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퇴직연금 펀드, 실손보험, 변액보험 펀드에 대한 보험상품기본정보 개방으로 표준화된 상품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정보와의 융합과 활용이 용이해질 것임
-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설계 개선(2021. 11. 5 금융위원회)
- 최근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심화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
 - 이에 금융당국은 ①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 ②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 강화, ③ 상품개발 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절차 마련, ④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를 통하여 합리적인 해지율 및 해지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
-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2021. 10. 13 금융위원회)
- 소액 기업성 보험인 가스·재난·학원 및 교습소·화재 배상책임보험과 간편실손화재보험의 계약 시 기존에는 법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확인 절차 등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담당자 본인인증을 통해 서류 없이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서비스 기간을 연장함